

광주 AI 기업들 도시문제 해결 이끈다

교통·환경·안전·사회복지 분야 등
솔루션 기업 6월 12일까지 모집
8개 분야 4개 과제…사업화 연계

인공지능(AI) 실증 기업들이 교통·환경·안전·사회복지 분야 등 광주 도시문제 해결에 힘을 보탠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2025년 도시문제 해결형 AI 솔루션 개발·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6월 12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시민 삶과 밀접한 문제들을 AI 기술로 해결하고, 현장 실증과 사업화까지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은 총 4개 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참여기업은 과제당 1억원 내외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모집 대상은 AI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이다. 자치구나 수요기관 등과의 컨소시엄 형태로도 신청



광주시 AI 집적단지 조감도.

할 수 있지만, 광주 외 지역의 기업은 사업 협약 전까지 본사를 광주로 이전하거나 지사·지점을 설치해야 한다
사업 기간은 올해 12월까지다. 선정된 기업은 광주지역 내 실증공간을 확보해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AI 기반 솔루션을 적용해야 한다.

이번 사업의 과제는 교통, 환경, 안전, 사회복지, 사회경제, 고용환경, 문화 관광, 정주 여건 등 8개 분야다. 광주시 자치구와 협업하는 과제 및 시민 제안 기반의 자유 과제도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교통량 예측 AI 시스템 낚은 시설 위험 탐지 시스템, 고독사 방지를 위한 라이프로그 관제 서비스, AI 기반 관광객 행동 데이터 분석 시스템, AI 기반 맞춤형 일자리 매칭 플랫폼 등이다.
주제는 지난 4월 시민광장 ‘광주 온(ON)’ 설문조사(4800여 명 시민 참여)와 도시문제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선정됐다.
참여 희망기업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오장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은 “이번 사업은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AI 솔루션을 실증하고 적용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지역 AI 기업의 시장 확대와 광주가 AI 실증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난 23일 서울시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안중은(왼쪽 두번째) 한전 경영관리부시장과 남궁호(왼쪽 세번째) 쏘카 CBO가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전 제공>

한전, 공기업 최초 업무용 공유차량 서비스

쏘카와 업무협약…운영비 절감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쏘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기업 최초로 ‘업무용 공유차량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업무용 공유차량 서비스는 한전이 업무 시 자사의 보유차량 대신 공유차량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차량 운영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전은 해당 서비스 도입을 위해 지난 23일 서울시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모빌리티 플랫폼 ‘쏘카’와 업무용 공유차량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안중은 한전 경영관리부시장과 남궁호 쏘카 CBO(최고 브랜드 경영자)가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전은 쏘카에 공유차량의 주차장 부지를 제공하고, 쏘카는 한전에

업무용 공유차량에 대한 사용 요금 60% 할인 및 주차장 이용료 부담 등을 약속했다.
한전은 협약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 소재 15개 사업소 내 주차장에 ‘쏘카존’을 설치하며, 하반기에는 전국 52개 사업소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한전은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보유차량의 구매비와 유지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를 통해 향후 10년동안 차량 구입비 77억5000만원, 운영비 11억원 등 총 89억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중은 한전 경영관리부시장은 “이번 협약은 한전의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작은 수익이라도 아껴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사례”라며 “앞으로도 업무 혁신을 통한 비용 절감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오늘부터 전세계약 전 다주택자·보증사고 이력 확인 가능

임대인 동의 없이도 조회

27일부터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전세사가 피해방지를 위해 2023년 2월부터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금지 여부, 상습 채무 불이행자(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등을 공개하

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보 공개는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뒤 임대인이 동의할 때만 이뤄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법 시행으로 세입자가 전세계약 체결 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HUG 전세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인지 여부 ▲최근 3년간 임대인이 HUG에 진 채무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임대인의 보유 주택 수가 많을수록 보증 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UG 보증 가입 주택을 1~2가구 보유한 임대인의 보증 사고율은 4%였지만 3~10가구는 10.4%, 10~50가구는 46%, 50가구 이상은 62.5%로 높아졌다. 예비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정보 조회를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다음 달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에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HUG는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내 임대인 정보를 제공한다.
전세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나는 경우에는 안심전세 앱으로 세입자가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세입자에게 보여줄 수 있다.
정보 조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조회는 신청인 당 월 3회로 제한된다. 임대인에게는 문자로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린다.
/김해나 기자 khn@

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보 공개는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뒤 임대인이 동의할 때만 이뤄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법 시행으로 세입자가 전세계약 체결 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HUG 전세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인지 여부 ▲최근 3년간 임대인이 HUG에 진 채무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임대인의 보유 주택 수가 많을수록 보증 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UG 보증 가입 주택을 1~2가구 보유한 임대인의 보증 사고율은 4%였지만 3~10가구는 10.4%, 10~50가구는 46%, 50가구 이상은 62.5%로 높아졌다. 예비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정보 조회를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다음 달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에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HUG는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내 임대인 정보를 제공한다.
전세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나는 경우에는 안심전세 앱으로 세입자가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세입자에게 보여줄 수 있다.
정보 조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조회는 신청인 당 월 3회로 제한된다. 임대인에게는 문자로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린다.
/김해나 기자 khn@

지난해 중·고등학생 체크카드 결제 금액 평균 175만원

한달 15만원…4년만에 30% 늘어

지난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평균 175만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매월 평균 15만원 수준으로 지난 2020년 대비 30% 증가한 수준이다.
26일 NH농협은행이 발표한 ‘그 많던 용돈은 어디로 갔을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체크카드 사용 일수는 평균 130일이었고, 결제 건수는 평균 262건으로 집계됐다.
NH농협은행은 코로나19가 중·고등학생 등 10대 청소년의 체크카드 사용 빈도를 늘렸다는

분석도 내놴. 하루에 두 번 이상 체크카드를 사용한 중·고등학생 비중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18%에서 지난해 29%까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외출 및 외식이 어려웠던 만큼 10대들이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일상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3월 학교 개학부터 체크카드 사용 빈도가 증가했고, 고등학생은 12월에 체크카드 사용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NH농협은행 측은 고등학생의 경우 수능이 끝난 고등학생들이 12월에 운전면허학원 등록, 여행, 쇼핑 등 소비를 늘린 것으로 분석했다.
성별로 보면 편의점, 학교 매점, 음식점 등은

남녀 중·고등학생이 모두 많이 찾았다. 이 밖에 남학생은 ‘게임방’을 연평균 16일로 가장 많이 이용했고, 여학생은 커피전문점(연평균 17일)을 자주 이용했다.
체크카드 결제 금액별로는 1건 당 3000~5000원이 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3000원 미만(18%), 5000~7000원(17%), 1만원 이상(12%), 7000~1만원(11%) 순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10대 학생들의 저축액도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10대 고객들의 예금계좌 잔액은 연초 대비 6% 증가했고, 같은 기간 펀드 계좌 잔액도 16% 늘었다.
/장윤영 기자 zzang@

광주경총 6월 조찬포럼 주제
트럼프 2기·중동 정세 등 3회

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는 “트럼프 2기와 중동 정세 등 6월 금요 조찬 포럼 주제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6월 조찬 포럼은 총 3회로 이뤄졌다.
첫 강연은 오는 6월 13일 광주시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광주과학기술원 명예 석좌교수를 맡고 있는 강운태 전 광주시장의 ‘지도자의 길 꿈과 도전, 그리고 이념’을 주제로 시작한다.
같은달 20일에는 ‘세계의 이슬람 이란을 가다’ 등 저서를 낸 노회숙 HS스마트교육센터장이 ‘피곤 타파! 마인드 바디 커넥션’을 주제로 강연한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5월 포럼 주제는 트럼프와 혼돈의 시대로 중국 진출에 대한 대안을 모색했다면, 6월 포럼은 우리나라 대통령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끝나지 않은 관세 전쟁과 중동 정세 이슈를 중심으로 준비했다”며 “회원 기업들의 중동 등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답답한 고민을 풀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요조찬 포럼 참석이나 회원가입에 대한 내용은 회원사업부(062-654-3426)로 문의하면 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신세계 오일·식초 등 건강 식재료 인기

다양한 올리브오일 선보여

광주신세계는 “최근 건강 식재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프리미엄 오일과 식초 상품을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저속노화’ 트렌드 확산에 따른 고가의 프리미엄 식재료 소비 증가 추세를 반영했다는 게 신세계측의 설명이다.
〈사진〉
실제 지난 1~4월 광주신세계 푸드마켓 내 그로서리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2% 신장했다. 광주신세계는 이 같은 고객 수요를 반영해 분관 지하 1층 그로서리 코너에서 프리미엄 오일 9종 등 다양한 올리브오일을 선보이고 있다.
올리브오일은 심혈관 건강 개선, 항산화 작용,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 등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기상품으로는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 ‘핀 카라도레’ (500ml), ‘샤포드스투블롱’ AOP 올리브오일 등이 있다.
프리미엄 오일과 함께 식초 역시 그로서리 매출 신장을 견인하고 있다.
대표 품목은 ‘돈조반니’ 콘디멘트 발사믹식초 (250ml), ‘아세타이아발피카’ (250ml) 등이다.
김영민 광주신세계 식품생활팀장은 “최근 비싸더라도 고급 식재료를 구매해 건강을 챙기는 소비 트렌드가 확산하고 있다”며 “광주신세계에서 다양한 프리미엄 식재료들을 만나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김민중 농어촌공사 사장이 26일 나주시 빛가람동 본사에서 여름철 농경지 침수 방지 및 시설관리 대책 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농어촌공사 농경지 침수 방지 시설 점검 나서

한국농어촌공사는 “나주시 빛가람동 본사에서 여름철 농경지 침수 방지 및 시설관리 대책 회의를 열고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경지·수리시설 피해 사례 및 원인 분석, 중장기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공사는 여름철 침수 등 재해 예방을 위해 저수지와 배수장 기능을 점검하고, 수위 관리 등을 통해 농업 기반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수리 시설물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저수지와 배수장에 대한 성능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저수지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방류 시설

과 보조 여수로를 확대 설치하고, 6~9월에는 저수율을 80% 이하로 낮춰 관리할 계획이다. 배수장의 경우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침수 우려가 있는 전기실을 이전하는 등 시설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또 재해 발생 시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용 시설에 계측기와 CCTV를 설치하고, 재난 안전 종합상황실을 통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
이 밖에도 주민 대피가 필요한 상황에는 자동 알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저수지 수위가 기준치를 넘어서면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시스템에 전파하고, 각 지자체 담당자와 수리시설 감시원에 실시간 경보 문자를 전송하는 등 안전 체계를 구축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 대한상의 대외협력위 공동위원장 위촉

한상원〈사진〉 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의) 회장은 “대한상의 대외협력위원회에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참여해 국회와 지역경제계 간 소통을 제고화하고 지역 현안을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대외협력위원회는 전국 74개 지역상의 회장으로 구성되며 수도권·중부권·영남권·호남·제주권 등 7개 권역별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된다.
한 회장은 호남·제주권을 대표하는 초대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됐으며 양재석 부산상의 회장,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이운철 울산상의 회장, 배해동 경기도상의연합회 회장 등이 공동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위원회는 경제계의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해 입법 초기 단계부터 기업의 현실과 지역 요구 등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 경제계 주요 법안에 대한 제언과 국회 주요 상임위 초청 간담회 등을 통해 국회와의 소통을 추진한다.
한상원 회장은 “광주가 미래차·인공지능(AI)·에너지 산업 등 국가 전략산업의 전진기지로 도약하고 있는 만큼 지역 특성에 맞는 입법과 제도 개

선이 절실하다”며 “대외협력위원회를 통해 광주를 포함한 지역 기업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고 경제계가 입법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외협력위원회 첫 회의는 오는 7월 대한상의 경주포럼에서 열린다. 위원회는 9월 정기 국회를 앞두고 규제 법안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담은 경제계 제안집을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44.40	(+52.31)
↑ 코스닥	725.27	(+9.29)
↑ 금리 (국고채 39년)	2.348	(-0.010)
↓ 환율 (USD)	1368.10	(-7.50)
〈오후 4시 49분 기준〉		